

광주 사회복지사들 '같은 일 다른 처우'

여가부 산하기관 소속, 복지부 산하보다 월 80만~200만원 적어 "동일 임금체계 마련해야" 인권위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광주시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처우가 다르다"면서 동일 임금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에 비해 월 80만~200만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각자 다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소속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

소속기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센터장 직급(10호봉 기준)은 약 2500만원, 생활지도원(5호봉)은 약 1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아동그룹홈을 운영하는 오화경

(여·59)씨는 최근 근무하던 교사들이 두 달 사이 세 명이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기관으로 이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그룹홈에 속한 아이들이 교사가 자주 바뀌니 이제를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급여 여건이 더 좋은 실정이라 모집공고만 나오면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데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력이 아예 없는 교사들을 계속 뽑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12년 동안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온 김선혜(여·55)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종합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가족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이직은 연감생심 꿈도 못 꾸는다고 했다. 급여가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이

러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노인복지관이 나 가족아동센터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테이블이 달라 받는 대우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정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급여·복지 등 조건이 없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등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정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아동 그룹홈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종사자 간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고자 예산 확보를 통해 자

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는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은 94.1%, 전남은 87.4%, 인천은 86.4%까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급여를 주고 있다.

반면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9.4%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주장이다.

결국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25일 광주시청에서 민·관·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구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해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419개소에 143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중등 임용시험 7.08 대 1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21일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65명(공립 348명, 사립 117명) 선발에 3293명이 접수해 평균 7.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48명을 선발하는 공립에는 2765명이 지원해 평균 7.9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음악 과목은 3명 선발에 62명 지원으로 20.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17명을 뽑는 사립에는 528명이 지원해 4.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남성 30%(995명), 여성 70%(2298명)로 나타났다. 공립은 남성 28%(756명), 여성 72%(1993명)이고, 사립은 남성 43%(228명), 여성 57%(300명)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6일에 실시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는 단장 중 26일 오전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는 광주 동구 푸른길의 나뭇잎 너머로 외출에 매달린 작업자가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제 항거 호남의병 기린다

31일 추모제·어등산의병의날 기념

일제에 항거한 호남의병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는 올해 13회째를 맞은 '한말 호남의병추모제 및 어등산의병의날 기

념식'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보문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주도한 한말 호남의병은 주로 어등산 일대에서 활동했다. 당시 일제의 말살(1909년 9~10월)작전으로 의병 500여명이 순국하고, 3000여명이 체

포됐다. 이번 추모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의병과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을 비롯해 광주시장·광주보훈처장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갑제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의병은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난 민군이다"면서 "어등산 의병으로 대표되는 한말 호남의병의 독립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오월어머니들, 국립현충원 등 서울 역사 탐방

국가보훈처, 27일 오월어머니집 회원 25명 초청

씨오월어머니들이 국립현충원 등 서울지역 독립·호국의 보훈현장 탐방길에 오른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오월어머니집 회원 25명을 서울로 초청,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정식 국가보훈처 단체는 아니지만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남편이나 자식, 형제자매를 잃었거나, 본인이 다친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8월 오월어머니집을 방문, 어머니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은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묘역을 탐방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청와대(영빈문→본관→상춘제→녹지원→연풍문)를 관람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방문, 전시실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약속을 지켜 초청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오월어머니들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 모두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동시장서 건어물에 맥주 한잔 어때요?

29일 건맥축제... 어린이 벼룩시장·미술 공모전도

치킨보다 맥주 안주의 원조격인 건어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맥주축제'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29일 광주시 서구 양동건어물시장 일대에서 '2022 양동건맥축제(건어물+맥주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며 양동건어물시장이 주관한다.

축제에서는 어린이 벼룩시장, 미술 공모전, 키킹 컬러링, 타투 체험 등 체험 행사와 양동 상인노래자

랑, 바이올린·성악 등 초청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청춘열전' 동아리가 참여해 건어물 쿠키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할 예정이다. 재활용품을 지정된 곳으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와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양동 전 통시장이 단순한 장보기 공간에서 나아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